

『소년세계』에 의해 만들어진 조선상 - 발행 초창기(1895년-1897년)를 중심으로 -

김성연*
yoni1357@hotmail.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2 조선의 문화 소개 |
| 2. 『소년세계』의 탄생, ‘조선’의 등장 | 4. 만들어지는 조선상 |
| 3. 조선의 ‘이야기’ | 5. 마치며 |
| 3.1 조선의 전래 동화 소개 | |

主題語: 이와야 사자나미(Iwaya Sazanami), 일본 아동문학(Japanese children's literature), 한일 비교 연구(Korea and Japan comparative research work), 소년세계(Shonen Sekai), 민화(Forktale), 구연동화(Oral Performance/ Japanese Storytelling)

1. 들어가며

『소년세계(少年世界)』는 일본에서 1895년(메이지28) 1월에 창간되어 1933년(쇼와8) 1월에 폐간된 소년을 독자 대상으로 한 종합 잡지이다. 창간된 이후 5년간 소년 잡지로는 유일하게 연간 발행 부수가 매년 백만 부를 넘겼다. 이러한 『소년세계』는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소년 대상 종합 잡지이며,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아동 잡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소년세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어 미학습자가 접할 수 있는 관련 연구 자료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년세계』 관련 선행 연구로는 大竹聖美(2003)와 조경숙(2011)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大竹聖美(2003)는 메이지기에 발행된 아동잡지(『穎才新誌』, 『少年園』, 『小国民』, 『少年世界』)에 게재된 조선 관련 기사를 모아 분석한 바 있다. 『소년세계』에서는 「三韓征伐」, 「朝鮮のお伽話(三つの願い)」, 「朝鮮のお伽話(陳張王)」, 「朝鮮のお伽話(一鼻十貫文)」의 4작품을 들었고, 분석한 작품은 모두 1900년(메이지33) 이후에 게재된 것들이었다. 한편 『소년세계』의 조선관에 주목한 조경숙(2011)은, 창간호에서 소개

* 立命館アジア太平洋大学(APU)非常勤講師

에 지나지 않던 조선의 유아들에 대한 기술이 1900년(페이지33) 이후 (제7월16호) 부정적인 시각이 더해져서 문맹, 무지, 야만하다는 반복적 예시를 통해 일본의 제국적 욕망을 표출하고,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에 대한 정당성과 타당성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고는, 『소년세계』의 발행 초창기(1895년-1897년)에 ‘조선’이 지속적으로 소개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소년세계』 창간 이전에도 『穎才新誌』(1877년 창간, 폐간 연도 불명), 『少年園』(1888년 창간, 1895년 폐간), 『小國民』(1889년 창간, 1895년 폐간)과 같은 소년 잡지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매체들이 조선을 소개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보의 일환으로서의 ‘조선’이었다.¹⁾ 반면 『소년세계』는 일본 소년 잡지 최초로 조선의 전래동화를 소개하는 등 소년들의 읽을거리로서 ‘조선’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면밀히 다루어 진 적이 없었던 『소년세계』의 발행 초창기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소년세계』가 지향한 제국주의적 세계관이라는 틀 안에서 소개된 조선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진 조선상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소년세계』의 탄생, ‘조선’의 등장

1895년(페이지28) 1월 1일, 하쿠분칸(博文館)은 그동안 출판해 오던 『幼年雜誌』, 『日本之少年』, 『學生筆戰場』, 『少年文學』, 『幼年玉手箱』를 폐간한 뒤 이와야 사자나미²⁾를 편집장으로 맞이하여 『소년세계』를 창간하였다. 일본 최초의 근대 창작 아동 소설인 『고가네마루(黃金丸)』(1891)를 집필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사자나미는, 1년 전부터 『일본 옛날이야기(日本昔噺)』 시리즈를 출판하고 있었다. 『소년세계』는 창간 당시부터 1899년(페이지32) 까지 매달 두 번씩 정기적으로 발행되었다. 그러다 1900년(페이지33)부터 매달 한 번 15일에 발행되었으며, 1933년(쇼와8) 1월을 끝으로 폐간되었다. 총 587권이 발행 된 것으로 추정된다. 창간 당시에는 A5판, 세로 21cm, 100페이지로 구성되었으나 창간 이듬해에는 124페이지를 넘는 등, 평균 130페이지를 전후로 하는 분량이었다. 논설, 소설, 사전(史伝), 과학, 유희(遊戯), 문학, 기서(奇書), 잡록(雜錄), 화담(画談), 학교 안내, 유람 안내, 도서 안내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少年園』(126호-130호) 을 통해서 ‘朝鮮烈婦朴夫人の話’, 『小國民』(제6년제10호) 을 통해서 ‘朝鮮の野蠻(金玉均の話)’이라는 이야기가 소개되었으나, 아동 문예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년’들의 읽을거리와는 거리가 멀다.

2) 巖谷小波(1870-1933), 본명은 季雄, 이하 사자나미라고 씀.

『소년세계』 창간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첫 페이지는 군복 차림의 어린 황태자 사진이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는 독자인 ‘소년’들의 모델이자, 거대한 제국주의국가로 성장해가려는 현재 일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다. 신공황후 삼한정벌의 그림(神功皇后三韓征伐之圖)도 눈길을 끈다. 그 뒷면에는 일장기와 옥일승천기를 교차시킨 그림 아래, “황후전하폐하만세 해군만세 천황폐하만세 황태자폐하만세 제국만세 황태후폐하만세 육군만세(皇后宮陛下萬歲 海軍萬歲 天皇陛下萬歲 皇太子殿下萬歲 帝國萬歲 皇太后陛下萬歲 陸軍萬歲)”라는 표어를 내걸어(p.1) 천황 제도를 지배원리로 하는 중앙 집권 국가인 일본 제국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독자인 ‘소년’에게 제시한다. 소설, 사전(史伝)란을 통해서도 삼한정벌을 감행했던 역사를 이용하여 일본의 잠재적 용맹성을 되새기게 한다. 또한 청일전쟁을 통해 세계무대에 우뚝 선 일본 ‘소년’들이 세계 지리와 세계 인구 등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수증기, 생명 보험료를 이용한 돈 계산 등의 소재에 이어, 숫자 일부터 십, 백, 천, 만, 억을 일본어, 중국어, 조선어로 소개하며(p.50), 이와 같은 근대적 지식의 습득을 장려하고 있다. 조금 더 페이지를 넘기면, 용감한 일본 육군이 중국 병사를 무찌르는 그림(p.68)이 나온다. 조선의 풍습 문화를 소개한 뒤(p.76), 청일전쟁의 전투 상황을 알려주는 전기(戰紀)를 통해 전쟁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p.83) 마지막으로 육군 사관학교의 안내 공고를 게재함으로써(p.89) 독자인 ‘소년’을 육군 사관학교로 안내하며 창간호는 끝이 난다.

일본이 “용맹 궤연 동양의 일대강국(勇名轟然東洋の一大強國)”이 되었음을 공표함과 동시에 “올해의 우리는 작년의 우리가 아니며, 오늘의 제군은 어제의 제군이 아님을 가슴 깊이 느껴야만(今年の吾人は去年の吾人に非ず、今日の諸君は昨日の諸君に非るを、深く感ぜざんばあらざるなり)”하며, 아울러 “이 명예로운 신강국의 소국민으로서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세계의 새로운 무대에 서야(此の名誉ある新強國の少國民として、今や將さに世界の新舞台に立たんとす)”함을 강조하고 있다. 편집장인 사자나미는, 창간호를 통해 「히노마루(日の丸)」³⁾라는 단편소설을 발표하였다. 이 소설은 『소년세계』 창간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아동 문예적 성격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창간호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소년세계』는 소년을 독자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당시 일본에는 ‘소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아동’이나 ‘아동 문학’이라는 일반적인 개념도 없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예 작품을 일컫는 통일된 명칭도

3) 12월 31일 밤, 화장 거울, 공, 풍선과 같은 등근 모양을 한 물건들이 죄다 모여 앉아서, 동으로 만든 사발이 얼음으로 얼려서 가뒤퍼린 삼나무로 만든 물 국자를 구출하기 위해 상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히노마루(日の丸)가 아버지인 태양(旭)에게 부탁해 얼음을 녹여 국자를 구해냈다는 이야기로, 일장기를 태양의 아들에 비유하고 있다.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사자나미는 무로마치시대의 오토기조시(お伽草子)라는 고전 문학의 장르 이름에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의미를 새로이 부여하여 ‘오토기바나시(お伽噺)’라는 말을 사용했다. 『아카이 토리(赤い鳥)』(1918)를 통해 ‘동화’라는 용어가 보편화될 때까지, 메이지 시대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예 작품을 일컫는 용어로 ‘오토기바나시’가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발행 초기의 『소년세계』에는 ‘오토기바나시’라는 말이 정형화되어 등장하지 않는다. 1899년(메이지32)부터 『소년세계』에는「전국 옛날이야기(諸国お伽噺)」가 연재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부터 ‘오토기바나시’가 정형화되어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⁴⁾

1894년(메이지27)부터 5년에 걸친 사자나미의 행보를 살펴보면, 1894년(메이지27) 7월부터 1896년(메이지29) 8월까지 『일본 옛날이야기(日本昔噺)』 24편을 출판하고, 1896년(메이지29) 10월부터 1899년(메이지32) 1월까지 『일본 오토기바나시(日本お伽噺)』 24편을 연이어 출판한 뒤, 1899년(메이지32) 1월부터 『세계 오토기바나시(世界お伽噺)』 출판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사자나미의 집필 활동은 2년간 독일에 건너감으로서) 잠시 주춤한 듯 보이나 귀국 다음해에 구루시마 다케히코⁶⁾가 일본 최초의 아동 문화 활동 단체인 ‘오토기쿠라부(お伽俱樂部, 1903)’를 조직하여 구연동화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다. 일본에 ‘오토기바나시’가 보급된 것은 구연동화 활동이 활성화되고 나서라고 할 수 있는데, 『소년세계』가 아동 문예 잡지로 거듭나는 시기도 이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초창기의 『소년세계』를 살펴보면, 사자나미를 중심으로 한 아동 문예 작품은 매 회 한두 편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사자나미는 아동 문예 작품 앞에 독자 대상이 되는 ‘유년(幼年)’ ‘유년부(幼年部)’ ‘소녀(少女)’와 같은 말을 표기함으로써 아동 문학이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다. 즉, 창간 당시의 『소년세계』는 아동 문예 잡지라기보다는 근대적인 신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학습 잡지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세계정세, 신무기, 영어 문법, 수학 공식, 기상 전문용어까지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소년세계』는 창간된 이후 5년간 소년잡지로는 유일하게 연간 발행부수가 매년 백만 부를 넘겼다. 거의 매해 발행부수가 150만부에서 200만부를 유지했다고 통계되는데,⁷⁾ 읽을거리가 풍요롭지 않아 한 텍스트를 다시 읽기, 읽어 주기, 돌려 읽기 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잠재적인 독자층도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근대적

4) 김성연(2015)「일본 구연동화 활동의 성립과 전과과정 연구」『日本近代學研究』48, 韓國日本近代學會, p.134

5) 『소년세계』 편집장 직책은 그대로 유지한 채, 1900년 11월부터 1902년 11월까지 독일 베를린 대학 부속 동양어 학교의 강사로 초빙되어 독일에 건너감.

6) 久留島武彦(1874-1960), 이하 다케히코라고 씀.

7) 『소년세계』의 발행부수에 관해서는 柳宗伸(2005)이「お伽話にみる文化ナショナリズム—雑誌『少年世界』の巖谷小波のおとぎ話分析—」(『言語地域文化研究』11, 東京外國語大學地域文化研究科, pp.168-170)에서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인 신지식을 갈구했던 일본 ‘소년’들의 열망을 말해주는 동시에 『소년세계』가 일본 ‘소년’들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제국주의를 받아들이는 가장 강렬한 매체였음을 말해준다.

그 창간호에 ‘조선’이 등장한다. 조선의 놀이 풍습과 낚시를 소개한 ‘풍속화담(風俗畵談)’이라는 짧은 글을 통해서이다. ‘풍속화담(風俗畵談)’의 내용을 보면, 조선에는 많은 놀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행하는 놀이로는 장기와 연날리기, 팽이, 주사위, 공차기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권장하는 활쏘기 놀이가 성행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씨름도 많이 한다. 화투⁸⁾도 많이 하는데 국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병사만이 할 수 있어서 밤새 화투를 하고 다음날 조는 이가 있다. 또한 추운 겨울에 강물이 얼면 언 강에 구멍을 뚫어, 물고기가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작살을 꽂아 고기를 잡는 조선의 강 낚시법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에는, 일본인에게 낯설게 보일 수 있는 조선의 놀이와 낚시 풍경이 삽화로 그려져 있다.(<표 1>에 인용) 또한 순수하게 조선인이 자필로 그린 그림이므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보충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조선의 아이들은 상당히 귀여우며 그 모습은 서양인보다 훨씬 더 귀여우나, 참으로 유순한 그 모습에는 활발함이 없음⁹⁾ 을 지적하고 있다. 단순히 조선의 문화를 소개하는 듯 한 글이지만 활발한 기개가 없고 마음이 부드럽고 약한, ‘유순(優柔)한 상대’라는 관점으로 조선을 바라보고 있다. 일제 강점기 이후, 이 ‘유순(優柔)’함은 총독부가 제시한 조선인이 지향해야 할 덕목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간다.¹⁰⁾

3. 조선의 ‘이야기’

3.1 조선의 전래 동화 소개

창간호에 조선의 놀이 풍습을 소개한 『소년세계』는, 2호와 3호에 연달아 조선의 전래 동화를 소개한다. 「세 가지 소원(三つの願い)」과 「진장왕(陳張王)」이 그것이다. 두 작품은 잡록(雜

8) 원문에는 ‘카루타(かるた)’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조경숙(2011)은 ‘카드놀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카루타의 역사가 화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과, 국법으로 금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도박성이 강한 ‘화투의 전신인 카루타’라고 판단하여 ‘화투’라고 번역하였다.
9) 朝鮮の朝鮮の小兒は非常に愛らしくして、其可憐なること遙かに西洋人の上にある。されど如何にも其優柔なることは圖に見るが如く、活発の軀なし。
10) 권혁래(2013)는, ‘유순’, ‘친절’과 같은 덕목은 다른 전통적 가치들과는 달리, 근대 국가적 덕목, 일본적 가치에 가까움을 지적하며 고소설이나 구비문학 작품에서도 이러한 덕목을 강조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한 바 있다.

録) 코너의 「재미난 이야기 고무풍선(輕口風船玉)¹¹⁾이라는 큰 제목 아래 소개되고 있다. 「재미난 이야기 고무풍선」은 교노 와라베(京の蘆兵衛)¹²⁾가 쓴 연재 칼럼으로 중국과 한국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大竹聖美(2008)는 이 두 작품이 사자나미에 의해 처음으로 일본 아이들에게 소개된 한국의 전래 동화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사자나미가 처음으로 소개한 한국의 전래 동화는, 사자나미가 아즈마야 니시마루(東屋西丸)라는 필명으로 『소년세계』제1권 7호(1895.4.1)에 발표한 「코 하나에 천 냥(一鼻十貫文)」이다.

「세 가지 소원(三つの願い)」과 「진장왕(陳張王)」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제1권 2호(1895.1.15)에 소개된 「세 가지 소원(三つの願い)」은 자식 없이 살고 있는 시골 노부부의 이야기다. 근처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꿈에 신이 나타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고 한다. 꿈에서 깬 할머니는 한밤중에 깬더니 배가 고프다며 따뜻한 떡 하나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갓 썬 듯한 떡이 푹 떨어졌다. 쓸데없는 곳에 소원을 빌었다며 화가 난 할아버지는 그렇게 떡이 먹고 싶으면 코 밑에 달고 다니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떡이 할머니 코 밑에 찰싹 달라붙어 버렸다. 하는 수 없이 마지막 소원으로 떡을 떼어냈다는 이야기다. 원문에는 말린 장(干腸)이라고 되어 있으나 알기 싶도록 하기 위해 떡으로 바꿨다는 설명이 덧붙여 있다. 원문의 출처를 알 수 없으나 원문이 존재하는 조선 전래 동화를 일본어로 번역했다는 정황을 알 수 있다.

제1권 3호(1895.2.1)에는 문학 칸 여백(p.47)에 조선의 나무꾼 그림이 게재(<표 1>에 인용)되어 있고 그 뒤 잡록(雜録) 코너에 「진장왕(陳張王)」이 소개되었다. 「진장왕(陳張王)」의 내용은 자비로운 임금 진장왕이 행인으로 변장하여 마을을 돌아보다가 남자가 노래하고 여승이 춤을 추고 그 옆에서 노인이 울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사연을 물어보니 매일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더 이상 팔 머리카락이 남지 않아 시아버지가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걱정되어 울자 시아버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아들은 노래하고 며느리는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한다. 효심에 감동한 임금님은 아들에게 과거 시험에 응시하라고 하는데 과거 시험 문제는 ‘상가승무노인곡’이었다.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어제의 울음소리가 오늘의 기쁜 소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머리 깎은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 또는 세종대왕, 성종의 민화로 한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

제1권 4호(1895.2.15)에는 조선인 활쏘기 연습(朝鮮人弓術練習, p.49) 그림(<표 1>에 인용)과

11) ‘輕口’란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 재담이라는 뜻이며, ‘風船玉’은 고무 풍선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輕口風船玉’을 ‘재미있는 이야기 고무 풍선’으로 번역해 둔다.

12) 1867년 3월 7일·没年不明. 본명은 堀野与七. 『소년세계』창간호부터 「輕口風船玉」라는 제목으로 중국과 한국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연재하는 한편 「今桃太郎」「俳諧誤訳題」「川柳点稚講釈」 등을 발표. 나중에 文祿堂이라는 출판사를 설립하여 『日本五大噺』(1901.9)를 출판함.

조선 여자아이의 그네 타는 모습(朝鮮小女ぶらんこ遊び, p.53) 그림(<표 1>에 인용) 이 소개되고, 제1권 7호(1895.4.1)에 사자나미가 아즈마야 니시마루(東屋西丸)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조선의 이야기(朝鮮のお伽話) 「코 하나에 천 냥(一鼻十貫文)」¹³⁾이 소개된다. 주인 돈 천 냥을 훔쳐서 감방에 갇힌 관리가 감방에서 빠져나와 자기가 돈을 훔친 주인을 찾아가 돈을 갚을 테니 코 모형이 그려진 종이에 도장을 찍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다. 그 종이를 가지고 옆 동네의 부잣집을 찾아가 관리의 부자의 아들을 만난다. 그 아들에게 국왕이 병에 걸려 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약에는 이 코 모형에 딱 맞는 코를 잘라 넣어야만 한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매었으나 당신의 아버지 코가 이 모양이랑 똑같다고 말한다. 그러자 놀란 아들은 재산의 반을 줄 테니 모른 척 그냥 돌아가 달라고 부탁한다. 그래서 관리의 코 하나로 천 냥 빚을 갚고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창작 동화인지 전래동화를 번안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소년세계』에는 세 편의 조선 전래동화가 소개되었다. 「세 가지 소원(三つの願い)」과 「코 하나에 천 냥(一鼻十貫文)」에서는 골계미 및 해학적 요소라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진장왕(陳張王)」은 ‘효심’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일본 소년 잡지에 소개된 최초의 조선 전래 동화인 이 세 편의 동화가, 1895년(페이지28)이라는 이른 시기에 발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조선 최초의 전래 동화집인 『조선 동화집』(다나카 우메키치, 조선 총독부)이 1924년(다이쇼13)에 출간된 것을 상기해 본다면, 이 세 편의 동화는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조선 동화집』에 수록된 전래 동화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선 전래 동화의 ‘원형’에 보다 가까운 작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¹⁴⁾ 참고로 이 세 편의 전래 동화는 『조선 동화집』에 수록되지 않았다.

3.2 조선의 문화 소개

제1권 5호(憐なる国民)와 6호(可憐なる国民)에는 치즈카 레이스이(運塚麗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한 조선의 모습이 2회 연속 연재 된다. 먼저 제1권 5호(1895.3.1)에 실린 「불쌍한 국민 (憐なる国民)」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13) 원문에 있는 ‘一貫文’이란 현재의 화폐가치로 대략 50만원에서 100만 원 정도이므로 ‘十貫文’은 500만원에서 천만원정도가 된다. 옛날이야기라는 작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천 냥’으로 번역하였다.

14) 「진장왕(陳張王)」(『소년세계』제1권 3호, 1895.2.1.)의 마지막에는, 「看よや仁川の、山は高く聳るぞ、往て吟する心地よし、くめや、濟物の、水は清く流る々ぞ、去て嘯く心地よし、左は去りながら日本の日に増し募る勢ひに、一樹の蔭も儘ならず、一河の流も儘ならず、此よき眺も彼が儘、我住む廬も安からぬ、嘆しきの至りなり」라는 조선인의 구슬픈 마음을 읊은 시가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편저자가 조선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표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① 【놀랐다! 방안에서 폭포 소리(驚いた! 座敷の中で瀑の音)】

조선에는 가마 안이나 방 안에 반드시 요강을 두고, 양반다리를 하고 손님과 이야기를 하다가도 한쪽 무릎을 세워 옷 속에 요강을 넣어 폭포 소리를 내고, 소변을 본 뒤에는 그대로 옆에 두고 담배 재를 떨거나 침을 뱉는데 사용한다. 치즈카가 황주(黃州)에 주둔해 있던 어느 날, 심심해서 동료 3, 4명과 함께 근처 민가를 산책하고 돌아가는 길에 목이 말라 한 집에 들러 사람을 불러 “물 가져 오너라.(ムル カチャ オナラ)”고 했더니 귀머거리로 보이는 주인이 물을 떠왔다. 한입 마셨더니 소변 냄새가 나서 요강에 물을 떠온 사실을 알고 바닥에 버리고 야단을 쳤다. 그랬더니 “땀이 주었소(マニー チョッソ)”라고 한다. 이 말을 “최상급의 물이잖아요(極上等の水でせう)”라고 이해한 치즈카는 화도 못 내고 그냥 웃으며 돌아 나왔다고 한다.

② 【벽이나 기둥이 반짝반짝 빛난다(壁や柱がピカピカ光る)】

조선인은 손가락을 코에 대고 코를 잘 푸는데 손가락에 묻은 콧물은 전신주든 벽이든 기둥이든 어디든 닦아놓기 마련이다. 그래서 조선의 벽과 기둥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코를 풀어도 절대 손을 씻는 법이 없다. 그 더러운 손으로 밥을 한가득 퍼담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집에 들어가 밥을 먹을 생각이 안 든다.

③ 【이상하여라, 떡고물의 고물이 날았다!(是は不思議、あんころ餅の餡が飛んだ!)】

파리는 조선의 명물이다. 파랗게 빛나는 파리로 집 안은 파리 비가 내리는 듯 하여 어느 한 곳 파리가 없는 곳이 없다. 중군 당시, 흥수(興水)역 근처에 떡을 파는 집이 보였다. 조선에는 설탕이 없기 때문에 꿀로 단맛을 낸다. 그래서 보통은 떡 고물도 소금 맛이 나는데 그 집에서 파는 떡에는 까만 팔소가 떡을 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얀 떡 위에 파리가 새까맣게 앉아 있는 것이었다.

④ 【한국 부인은 필요이상으로 점잔을 빼고 있다(韓婦はいやに澄まして居る)】

길거리를 다니는 한국 부인은 쓰개치마로 머리와 몸 윗부분을 가리고 있다. 보이는 건 눈과 코뿐이다. 주름투성이의 노부인은 쓰개치마를 안 쓴다. 쓰개치마를 접어서 머리위에

올리고 다니는 여인도 있다. 일본인을 보면 여인들은 얼굴을 돌리고 길이 좁아 외면하기 힘들 때는 등을 돌려 구석으로 가 서서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못생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정말이지 봐 줄 수가 없다. 경성 근처 마을을 산책하는데 “왜 놈 왔소(わいのむわツぞ)”라고 소리치며 허둥지둥 집 안으로 도망가 숨는데 빨래를 하던 여인은 빨랫감과 빨래 방망이도 내팽개치고 도망을 갔다.

계속해서 제1권 6호(1895.3.15)에 소개된 「가련한 국민(可憐なる国民)」도 살펴보겠다.

⑤ 【어린이들의 놀이(童男童女の遊戯)】

조선의 아이들은 복숭아색의 얼굴에 복스럽게 살이 찌서 더없이 귀엽다. 조선의 아이들의 놀이는 일본 아이들의 놀이와 비슷하다. 땅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속에 납작한 작은 돌을 던져 놓고 쳐내는 놀이는 일본의 멘코 놀이(メンコ遊ビ)와 같다. 여러 개의 작은 돌을 손바닥에 올려 쥘싸게 던져 올려 받아내는 놀이는 일본의 오테다마 놀이(お手玉遊ビ)와 같다. 술래잡기는 일본의 오니 굿코(鬼ごっこ)와 같다. 단 일본의 놀이와 다른 놀이는, 비가 온 뒤 작은 강의 부드러운 모래에 용의 모양을 만들어 노는 것이다. 도자기의 부서진 조각이나 조개껍데기를 주워서 용의 비늘을 만든다.

⑥ 【경성 도처에 있는 도박장(京城到るところに賭場あり)】

경성 도처에는 도박장이 있다. 아침부터 도박을 하는 이가 많다. 병사나 순사의 모습도 보인다. 도박의 방법은 주사위를 던져서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내기 장기(將棋)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⑦ 【술, 과자, 과일(酒, 菓子, 水物)】

조선인이 마시는 술은 소주(燒酎)와 탁주(濁酒) 두 종류밖에 없다. 과자는 세, 네 종류밖에 없다. 명물이기도 한 엿은 제법 맛이 좋으며 작은 상자를 어깨에 둘러매고 일본의 꽃장수와 같이 가위를 치며 엿을 팔러 다닌다. 과일은 극히 드물다. 감은 끓여도 뚱고 복숭아는 작지만 맛있다. 평안도에는 큰 복숭아 같은 대추가 있는데 상당히 달다. 참외는 사람 머리만한 크기가 많이 있고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달고 맛있다. 평민들이 여름에 수시로 먹는 것은

이 참외뿐인데 마치 도쿄의 빈민들이 겨울에 군고구마(燒芋)로 허기를 달래는 것과 같다.

⑧ 【병사의 행렬(兵隊の行列)】

세상에 한국 병사들의 훈련만큼 재미있는 것은 없다. 불완전하나마 훈련법이 있으며, 오른쪽으로 향하라고 호령하면 오른쪽을 보는 이도 있고 대각선을 보는 이도 있고 왼쪽을 보는 이도 있다. 총검으로 앞을 찌르라고 호령하면 왼쪽을 찌르는 이, 오른쪽을 찌르는 이, 대각선을 찌르는 이도 있어 그 난잡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훈련 중에 옆에 선 이와 수다를 떨며 웃거나 호령을 마이동풍마냥 흘려들으며 자기 마음대로 대오를 벗어나 버리는 이도 있고 바지를 벗고 불일을 보는 이, 훈련 중에 빗쟁이가 찾아와 자기 돈을 안 갚는 이를 붙잡고 큰 소리로 갚으라고 재촉하는 경우도 있고, 곰방대를 입에 물고 훈련을 받는 이, 옷자락을 열어젖히고 바람을 쐬고 있는 이, 천태만상, 놀랄 일이 끝이 없으나 지금은 모두 일본식으로 훈련을 받아 그런 모양새들이 사라졌다.

위와 같이 8종류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을 소개하고 있는데, ①요강 ②꽃물 ③파리는 비위생적인 조선의 모습을 전하고 있으며, ④조선의 부인 ⑤놀이 ⑥도박 ⑦술, 과자, 과일을 통해 문명화 되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한 ‘비근대적’인 조선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⑧한국 병사의 훈련 모습을 통해 오합지졸의 한국 병사가 일본식으로 훈련을 받아 근대화되었음을 전하며 끝을 맺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일본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하는 ‘조선’이, 일본에 의해 교화되어야 하는 대상임이 부각된다.¹⁵⁾

15) 이러한 일본의 조선관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1년 전『少国民』(1894, 5, 15)에 발표된 김옥균의 이야기인「朝鮮の蛮風」을 통해서도「조선은 우리의 이웃이므로, 우리나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힘들게 가르치며 이끌어주고 있지만, 좀처럼 야만적인 기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고집스러움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朝鮮はわが隣国ゆえ、我国では、随分骨を折って教へ導いてくれてをるのですが、中々野蠻風はぬけません。この頑固は、国が滅びない間は改まりますまい。)」라고 표현되고 있다.

〈표 1〉 『소년세계』(창간호-제1권7호) 조선 관련 삽화 모음

제1권1호 (p.76)	제1권1호 (p.77 상단)	제1권1호 (p.77 하단)
제1권2호 (p.77)	제1권2호 (p.79)	제1권3호 (p.47)
제1권3호 (p.81)	제1권3호 (p.82)	제1권4호 (p.49)
제1권4호 (p.53)	제1권5호 (p.67)	제1권6호 (p.67)

		
<p>제1권6호 (p.68)</p>	<p>제1권6호 (p.69)</p>	<p>제1권7호 (p.81)</p>
	<p>人軍其と鮮朝</p> 	 <p>投雄正田飛</p>
<p>제1권7호 (p.82)</p>	<p>제1권21호 (p.19 上)</p>	<p>제1권21호 (p.19 下)</p>

4. 만들어지는 조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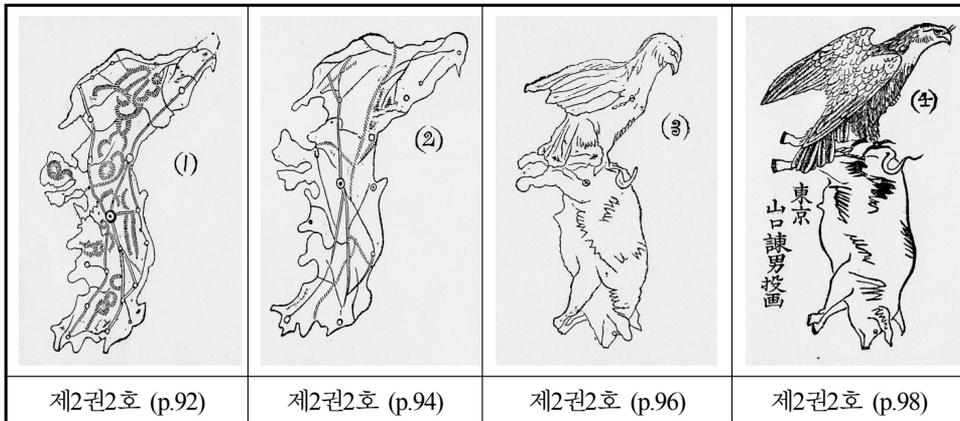
창간호부터 제1권 7호(1895.4.1)까지, 발행 초기 넉 달에 걸쳐 『소년세계』가 엮어낸 조선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독자인 일본의 ‘소년’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조선의 병사’를 한 예로 독자의 수용 과정과 인식의 양상을 확인해보겠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1권 6호(1895.3.15)에 ⑧ 【병사의 행렬(兵隊の行列)】을 통해 ‘천태만상’의 조선 병사의 모습이 소개되었다. 그 뒤 제1권 21호(1895.11.15) 유년(幼年)란에 마련된 「생각해 볼 일(考へ物)」이라는 독자 투고란에 도비타 마사오(飛田正雅)라는 독자가 투고한 「조선과 그 군인(朝鮮と其軍人)」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소개된다. (〈표 1〉의 마지막 두 개의 그림)

위부분에 조선의 지도를 그려놓고 그 바로 밑 부분에 갓을 쓰고 구부정하게 주저앉은 남자가 태극기를 어깨에 둘러매고 있는 형상으로 조선의 지도를 바꿔 그려 놓은 그림이다. 이 그림을 투고한 독자는 조선의 지도를 보면서 우스꽝스러운 조선 군인을 연상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백만 부도 넘게 팔려나간 『소년세계』를 통해서 많은 일본의 ‘소년’들이 이와 같은 조선의

이미지를 공유했을 것이다. 독자들에게 각인된 인식을 확인시켜 주기라도 하듯이 제2권 18호 (1896.9.15) 에는 갓을 쓰고 훈련을 받는, 결코 ‘근대적’인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병사들을 촬영한 「조선의 연병(朝鮮の練兵)」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소개된다. 『소년세계』에 의해 소개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선이 일본의 우월함을 반증하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근대적인 문명의 습득은 근대적 지리학의 좌표를 따라 바다 너머의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었다. 근대를 인식하는 첩경이란 근대문명을 영위하는 국가들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¹⁶⁾ 『소년세계』 독자인 ‘소년’들 사이에서 영토의 형태를 기억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은 이러한 인식의 확대를 뒷받침한다. 제2권 2호(1896.2.1) 에 게재된, 도쿄에 거주하는 아마구치 이사오(山口諫男)라는 독자가 투고한 그림도 그러한 맥락에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구치 이사오(山口諫男)가 투고한 그림은 무려 4페이지에 걸쳐 소개된다. 조선의 지도가 서서히 네 단계에 걸쳐 독수리에 낚아채인 돼지 형상으로 바뀌는 그림이다.

〈표 2〉 독자 투고 그림(제2권 2호)



최남선에 의해 발행된 『소년』의 창간호(1908.11.1)에는 「봉길이의 지리 공부(鳳吉伊地理工夫)」라는 글이 있는데, 그 중에 「大韓의 外圍形体」가 있다. 이 글을 통해 최남선은, 조선의 모양을 토끼에 비유한 일본의 지리학자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¹⁷⁾의 의견에 대해, “이것은

16) 서동수(2008)「아동의 발견과 ‘식민지 국민’기획」『한국현대문화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한국현대문화학회, 2008년 제2차 전국학술발표대회, p.120

17) 동경제국대학의 小藤文次郎은 1900년부터 1902년 사이에 14개월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답사하여 조선의 지형에 대해 연구하고「조선 산악론」을 비롯한 3편의 논문을 펴내고 1903년에는 지도인 「조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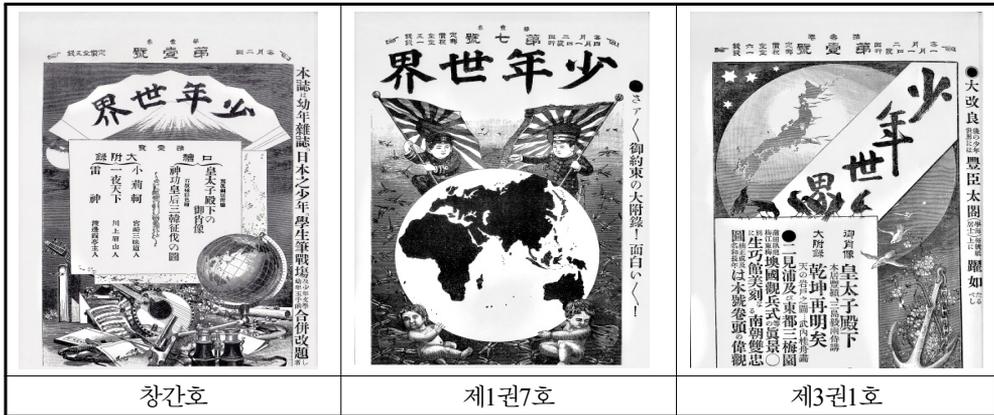
崔南善의 按出인데 우리 大韓半島로써 猛虎가 발을 들고 허위덕거리면서 東亜大陸을 向하여 나르난 듯 뛰난 듯 生氣있게 활키며 달녀드난 모양'이라고 반박하며 호랑이 형상의 조선 지도를 선보였다. 조선의 형상은 발을 들고 대륙을 향해 활키며 달려드는 생기 있는 호랑이 모양이며 이는 진취적이고 팽창적인 조선의 무한한 발전과 왕성한 원기를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최남선은 『소년』 2호를 통해 “前次에 出한 『大韓의 外圍形体』에 關한 論說은 크게 江湖의 讚美를 얻어 웃더케 조흔디 모르겟소”(p.66)라고 밝히고 있다. 『소년』 창간호의 독자가 겨우 3, 4명에 지나지 않았다고는 하나, 호랑이 형상의 조선 모양이 ‘크게’ 호응을 얻은 것이었다. 그 후 호랑이는 조선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되며 조선 지도를 둘러싼 토끼와 호랑이의 대결구조가 형성된다. 한반도 지도 형상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민족의식과 정체성 문제에 맞물려 많은 담론을 형성해 오고 있는데 그러한 논란의 시발점을 『소년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¹⁸⁾

1895년(메이지28) 1월 1일에 창간된 『소년세계』의 표지는, 일본에서 발명한 철부채 안에 후지산을 그려 중앙 상단에 높이 배치한 뒤 하단에는 지구의, 망원경, 지도, 악기, 권총 등 신지식의 상징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4개월간 사용된 이 표지는 제1권 7호(1895.4.1) 부터 바뀐다. 새 표지는 일본 병사 두 명이 지구에 육일승천기를 꽂고 있는 그림이다. 일본과 청국이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이 청일전쟁에 이긴 대가로 거액의 배상금과 遼東半島(遼東半島), 타이완(台灣), 평후섬을 할양받은 것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 어느 한 지역이나 나라가 아닌, 지구 전체에 육일승천기를 꽂고 있는 그림은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욕망을 여실히 보여 준다. 제3권 1호(1897.1.1)에 이르면,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 사라지고 지구 중앙에 일본 지도만 이 그려진 표지가 등장한다. 전 세계를 정복한 일본 제국의 이상향이다.

도를 완성시켰다. 1903년에 조선의 지질 구조도를 발표하면서 조선이 토끼 모양이라고 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은 토끼모양이라는 개념이 정착했다.

- 18) 정민(2013)에 의하면, 최남선의 호랑이 지도는 이후 폭넓은 호응을 받아 각종 잡지의 표지에 조선을 상징하는 호랑이가 속속 등장한다. 1913년 1월 『붉은 저고리』 창간호와 같은 해 4월 『신문계』 창간호 표지, 1914년 10월에 간행된 『청춘』의 창간호 표지가 그러하다. 이밖에도 1925년 『새벗』 창간호와 1926년 『별건곤』 창간호 표지에도 호랑이가 잇달아 그려졌다.

〈표 3〉 『소년세계』의 표지 변천사



제3권 3호(1897.2.1)에는 조선 풍경 소개로 금강산 절 사진과 일장기를 빼곡히 걸어둔 경성 소학교(京城小學校)의 사진이 게재된다. 경성 소학교의 사진을 통해 1890년(페이지23) 10월 7일에 제2차 소학교령¹⁹⁾을 반포하여 심상소학교와 고등소학교를 제도화시킨 일본이, 1891년(페이지24) 가을부터 경성에 소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사실이 소개된다. 그리고 『소년세계』는 더 이상 중국이나 조선이 아닌 독일, 스페인, 러시아의 이야기에 페이지를 할애 하며, 조선의 옛날이야기를 소개하던 잡록(雜錄)에는 오노에 신페이(尾上新兵衛=久留島武彦)의 「고노에 신페이(近衛新兵)」라는 군대 이야기와 러시아 해군 이야기를 소개한다. 뉴욕의 자유여신상, 베를린의 개선기념비, 파리, 런던의 기념비 사진이 빙 둘러싼 중앙에 육일승천기와 일장기를 세운 히비야 개선문의 사진을 배치하여 세계의 중심이 일본이 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5. 마치며

본고는 지속적으로 ‘조선’이 소개된 발행 초창기(1895-1897)의 『소년세계』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소년세계』에 게재된 조선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메이지 시대에 일본에서

19) 1886년 4월 10일 제1차 소학교령을 선언한 일본은 심상소학교(4년)와 고등소학교(4년)의 2단계로 나누어 심상소학교 4년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였으나 1890년 10월 7일에 제2차 소학교령을 선언하여 의무교육인 심상소학교의 교육과정을 3년 또는 4년으로 하고, 고등소학교의 교육과정은 2년, 3년 또는 4년으로 규정하였다.

가장 많이 팔린 소년 잡지인 『소년세계』는, 일본이 거대한 제국주의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소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조선상을 만들어 나갔다. 본고는 그 출발 지점에 주목하였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비위생적’이고 ‘비근대적’인 조선상은, 일제 강점기 이후 식민 통치정책으로 이어지는 조선상의 기본 틀로 작용하게 된다. 일본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하는 대상인 ‘조선’은 일본에 의해 교화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부각되어갔다.

『소년세계』를 통해 ‘유순(優柔)한 상대’로 그려지기 시작한 조선은, 이후 총독부가 내세운 ‘유순(優柔)’이라는 새로운 덕목을 지향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또한 한반도 지도 형상에 대한 논란의 시발점도 『소년세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독자들의 능동적인 참가에 의해 조선이 일본의 우월함을 반증하는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가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년세계』를 통해 1895년(메이지28)에 세 편의 조선 전래 동화가 소개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 세 편의 동화는 일본인에 의해 일본어로 쓰였다는 한계를 안고 있지만, 일본 소년 잡지에 소개된 최초의 조선 전래 동화이자, 조선 최초의 전래 동화집인 『조선 동화집』(다나카 우메키치, 조선 총독부)보다 무려 29년이나 먼저 소개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 텍스트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1906년(메이지39) 9월, 사자나미는 다케히코를 채용하여 하쿠분칸(博文館) 내에 소년세계 강화부(少年世界講話部)를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구연동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일본에 아동 문학을 보급하려는 강한 의식을 표출하였다. 구연동화 활동의 움직임과 연동하여 근대적인 신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소년세계』는 아동 문예 잡지로 거듭나게 된다. 1906년(메이지39) 이후, 아동 문예 잡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소년세계』가 만들어내는 조선상은 또 어떠한 변화를 거치게 되는지 흥미롭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 김성연(2015)「일본 구연동화활동의 성립과 전과과정 연구」『日本近代學研究』48, 韓國日本近代學會,
권혁래(2003)「조선총독부편 『조선동화집』(1924)의 성격과 의의」『동화와 번역』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 연구소
_____(2013)『조선동화집(1924) 연구』보고서
오오다케 키요미(2008)「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와 근대 한국」『한국아동문학연구』한국아동문학학회
오상철(2000)『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교육과학사
서동수(2008)「아동의 발견과 ‘식민지 국민’기획」『한국현대문학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한국현대문학회 2008년 제2차 전국학술발표대회
정 민(2013)『한국학, 그림을 그리다』태학사

조경숙(2011)『『소년세계』와 조선 : 이문화 조선에 대한 타자적 시선과 제국적 욕망』『한국일본어문화학회 학술 발표대회논문집』6, 한국일본어문화회
_____(2011)「메이지기 아동잡지『소년세계』와 조선」『일본학보』89, 한국일본학회
大竹聖美(2003)「明治期少年雑誌に見る朝鮮観」『朝鮮学報』朝鮮学会
柳宗伸(2005)「お伽話にみる文化ナショナリズム-雑誌『少年世界』の巖谷小波のおとぎ話分析-」『言語地域文化研究』11, 東京外国語大学地域文化研究科

논문투고일 : 2015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0월 19일

< 要 旨 >

『소년세계』에 의해 만들어진 조선상

- 발행 초창기(1895년-1897년)를 중심으로 -

『소년세계』는 1895년 1월 1일 하쿠분칸에서 창간되어 한 달에 두 번, 총 587권 정도를 발행한 뒤 1933년 1월에 폐간된 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합 잡지이다. 창간된 이후 5년간 소년 잡지로는 유일하게 연간 발행 부수가 매년 백만 부를 넘겼고 거의 매해 발행 부수가 150만부에서 200만부를 유지했다고 통계되고 있다.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소년 대상 종합 잡지이며,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아동 잡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소년세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어 미학습자가 접할 수 있는 관련 연구 자료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면밀히 다루어 진 적이 없었던 1895년에서 1897년까지의 발행 초창기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소년세계』에 소개된 조선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진 조선상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비위 생작’이고 ‘비근대적’인 조선상은, 일제 강점기 이후 식민 통치정책으로 이어지는 조선상의 기본 틀로 작용하게 된다. 『소년세계』를 통해 ‘유순(優柔)한 상대’로 그려지기 시작한 조선은, 이후 총독부가 내세운 ‘유순(優柔)’이라는 새로운 덕목을 지향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또한 한반도 지도 형상에 대한 논란의 시발점도 『소년세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독자들의 능동적인 참가에 의해 조선이 일본의 우월함을 반증하는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가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소년세계』를 통해 1895년에 세 편의 조선 전래 동화가 소개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 세 편의 동화는 일본인에 의해 일본어로 쓰였다는 한계를 안고 있지만, 일본 소년 잡지에 소개된 최초의 조선 전래 동화이자 조선 최초의 전래동화집인 『조선 동화집』보다 무려 29년이나 먼저 소개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 텍스트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The image of Joseon was developed by the “Shonen Sekai(Boy’s World)”

- Focusing on the early magazine issues (1895-1897) -

Launched on January 1, 1895, “Boy’s World” was the first comprehensive magazine for boys in Japan that discontinued in January 1933. This unique yearly magazine soared in a span of five years, publishing between one hundred fifty to two hundred million copies annually. Among the magazine publications for children during the Meiji era, “Boy’s World” became a renowned piece of work. However, due to the lack of exposure of the magazine and its contents in Korea, as well as the number of Korean readers who do not know the Japanese language well, there is insufficient information provided on “Boy’s World” at the moment. Hence, this study aims to build on the Joseon image through the stories that were told in the “Boy’s World” magazine from 1895 to 1897. Since Japan-Korea annexation, the depiction of an “unhygienic” and “non-modern” Joseon which was made in this period might be acting as the basic frame that led to colonial government policy later. Starting from “Boy’s World” issue, we could find and gradually build the shape of Joseon’s map at that time. With active participation of readers, it was clearly seen that Joseon’s illustrations were used as means of demonstrating the beauty of Japan. Moreover, three Joseon folktales were introduced in 1895 issue of “Boy’s world”. Since the Japan-Korea annexation, it can be inferred that the basic frame of colonial government policy stems from the depiction of an “unhygienic” and “non-modern” Joseon as told through three Joseon folktales in the 1895 magazine issue of “Boy’s World.” Moreover, 29 years prior to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Joseon Folktales Collection,” these three folktales were written in Japanese by Japanese people, and were the first Joseon works ever introduced in the magazine. Hence, these stories are truly valuable.